



## 국민 영웅 청춘 소방관 국민결 떠났다...

순직 소방관 예우 하긴 하나?  
20년간 유족 추모식 지원 0원  
소방청, 신규예산반영 어려워

**관련기사 2·3·4면**

국민의 영웅 청춘 소방관이 국민의 결을 떠났다.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 김수광·박수훈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청춘불패의 국민 영웅이 국민결을 떠났다. 하지만 순직 소방관 예우를 강조해온 당국이 지난 20년간 유족들의 추모식 예산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해마다 장비와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정작 현장에서 화마 속에 쓰러진 소방관과 그 유족을 살피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던 것이 나타나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소방청과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들을 회원으로 둔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열어 왔다. 2023년은 추모식이 열린 지 20번째를 맞는 의미 있는 해였다. 추모식에는 유족과 소방관 동료를 비롯해 남화영 소방청장과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모식 예산은 총 5000만원이었는데, 대전보훈청이 국고보조금에서 4000만원(80%)을 지원했고, 기념회는 후원금과 유족 회비로 나머지 1000만원(20%)을 충당했다.

소방청에서 예산 지원은 없었다. 지난해 뿐만 아니라 추모식이 처음 열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보훈청이 2016년부터 추모식 개최를 위해 매년 지원해온 국고보조금 4000만원도 올해는 30% 삭감된 2880만원으로 줄었다. 소방 당국이 올해 예산에 순직 소방공무원 관련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한 것은 달라진 부분이긴 하다. 사업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소방청장 위문품 명목에 5000만원, 나머지 5000만원은 올해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에 조성되는 '소방영웅길'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감식에서 식용유 폭발 등 모든 상황을 포함,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밝힌다. 20~30대 청년 소방관 2명의 생명을 앗아간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는 사업장 내부 환경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사고 현장의 증인 등에 따르면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고(故) 김수광 소방교(27)와 박수훈 소방사(35)가 인명 검색과 구조 등을 위해 진입한 건물 3층 작업장은 튀김류를 튀기려고 준비한 업소용 18리터짜리 식용유 180여통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같은 당시 작업장 상황상 적재된 식용유가 화염에 휩싸여 폭발하면서 3층 바닥이 붕괴, 소방대원 2명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튀김기에 대한 정밀 감식과 특히 3층에 얼마만큼의 식용유가 쌓여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식용유는 불이 확산돼 화염에 노출되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했다. 김성용 기자

## 김광열, 死에서 生... 이제는 전진 뿐

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  
2심서 벌금 90만원  
낙마기로 전격희생  
영덕의꿈 힘찬飛上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나만의 기로에서 전격 희생한 셈이다. 때문에 김군수는 안울의 시간을 뒤로하고 영덕의 백년초석을 다지는 사실상 민선 8기 영덕시대를 연다. 그는 영덕의 꿈 영덕의 희망 영덕의 미래를 2024 갑진년 여의주를 문 청룡과 함께 힘차게 비상한다는 각오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만들고, 다가오는 미래를 영덕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역점시책들을 군민과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못다한 김 군수의 군정 최우선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경기 침체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지역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덕군의 올해 예산은 사상처음으로 6000억원 시대다. 그는 국가사업과 산학연계사업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 부가가치를 높여 1000만 관광객, 전국 해안관광 1번지의 도시를 건설한다. 조여은 기자

김광열(사진) 영덕군수가 힘차게 비상한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김군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62) 영덕군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광열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묵인해 공모를 인정한다"며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 영웅**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화마에 휩싸인  
고귀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임직원 일동

# 상상을 주도하다

**청년정착플랫폼**

- ▶ 청년 일자리 상담·주거 문화 지원
- ▶ 청년센터 등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이차전지클러스터**

- ▶ SK에코플랜트와 MOU 체결
- ▶ 관련 기업 1조 1800억원 투자 유치

**스마트팜혁신밸리**

- ▶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혁신밸리
-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

**가족친화도시**

- ▶ 청소년 직업체험, 자립준비청년 지원
- ▶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시!  
상주시가 시민의 행복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완성해 갑니다.



# “고귀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통곡의 눈물

문경 火魔 순직 두 소방관  
영결식 엄수...동료 소방관  
운구차량 도착...거수 경례

국민의 영웅 청년 소방관이 국민의 결을 떠났다.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영결식이 3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청장(筭)으로 엄수됐다.

고(故)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를 실은 운구 차량이 이날 오전 10시 경북도청 동라관에 도착하자 동료 소방관 700여 명이 거수경례로 맞았다.

유가족들은 영결식장에 운구행렬이 들어서자 두 소방관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영결식엔 유족과 친지, 소방청장과 동료 소방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이철우 경북지사, 도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 □ 통곡의 바다된 영결식

두 소방관과 한 팀에서 근무했던 윤인규 소방사는 영결식 조사에서 “화재 당일 어느 때와 다름없이 화재 출동 벨소리가 울리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던 우리 두 반장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반장님이 그러했듯이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김 소방장의 20년 지기인 전남 광양소방서 소속 김동현 소방관은 “소방관이라는 꿈을 꾸며 어둡고 좁은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했던 시간이 생각난다. 먼저 합격한 내가 시험 준비 중인 나에게 미안해하면서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슬퍼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자’던 너의 말이 오늘 더욱더 기억난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 생에는 희생하며 사는 인생보단 너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너의 행복,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며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전에서 “두 소방관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소방관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이었다”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두 소방관을 화마 속에서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장례위원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우리는 경북도의 두 청춘을 떠나보낸다”며 “구해 내지 못해 미안하고 이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서 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소방관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면서 “경북도는 고귀한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근무 환경을 더욱 살피고 어려운

상황은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하는 관을 바라보며 김 소방장 어머니는 “수광아 보고 싶다”고 통곡했고, 부친도 아내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다.

이날 열린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1계급 특진, 윤석열 대통령 조전 낭독, 조사, 헌화와 분향, 조종발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 소방관은 영결식 후 문경 예송원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경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업체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났다.

당시 인명 검색과 구조에 나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치솟는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급속히 번진 불길에 휩싸여 고립됐다 1일 새벽 끝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 □ “가지마라 내 새끼...” 오열

동료들이 문경장례식장에서 두 소방관의 관을 들고 운구차량으로 향하자 두 어머니는 관 위로 쓰러져 ‘못 보낸다, 가지 마라 내 새끼’라고 오열했다.

두 소방관은 경북도청 동라관에 열리는 영결식장에 가기 전 생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문경소방서 119안전센터에 들렀다.

두 부모는 아들이 착용했던 근무복을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다.

김 소방관의 유가족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했던 구조구급 대기실에 들러 “수광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겼다고...”라고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에 손길을 대며 그의 온기를 느끼려고 했다.

문경소방서를 떠나기 전 한 소방관은 유가족에게 문경소방서에 걸려 있던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를 읊었다.

1958년 미국 소방관 스모키 린이 쓴 이 시는 목숨 걸고 투입된 화재 진압 과정에서 3명의 아이를 미처 구하지 못했고 그 죄책감에 쓴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시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주소서’라고 적혀 있다.

마지막 문단에 있는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주소서’라는 문구에 두 소방관의 유가족은 “보고싶다”, “가지 마라”라고 하며 쓰러졌다.

영결식 후 두 소방관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고인들의 고향인 경북 구미·상주소방서와 문경소방서, 경북도청 동라관 등 4곳에 설치된 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된다.

소방청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날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 □ 분향소 울린 ‘대답 없는 호명’

장례식장 201호와 301호에 각각 마련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고(故)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의 빈소는 여전히 침묵만 흘렸다.

전날 빈소를 찾았던 남하영 소방청장은 이날 오후 1시쯤에야 떠났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김수광 소방장 모친의 지인들은 황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채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수광이가 정말 성실하고 착했다. 부모에게도 정말 잘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소방장의 매형은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토록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저는 119 구급대원을 천직으로 알고 체력훈련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자식 잃은 어른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느냐”며 말을 잊지 못했다.

박수훈 소방교의 동료라고 밝힌 30대 소방관은 “고된 업무를 하면서도 언제나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준 친구”라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앞에”의 무가치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했다.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문경소방서에도 소방 동료들과 일반 시민들이 찾아 고인들을 애도했다.

환하게 웃는 고인들의 영정을 한참 바라보던 문경퇴직소방관동우회 한 회원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화재 현장에서 다친 적이 있다”며 “불이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하기 바쁘게 소방관들은 자기 책임과 의무가 있어 늘 사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서 나와야 했는데 자기 목숨을 바친 순직이 돼 버려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소방관 처우와 제도적 안전장치 등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창배 문경퇴직소방관동우회장은 “아깝게 꽃다운 목숨을 잃은 후배들의 사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나 먹먹했다”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물류창고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38명이 나온 경기 이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들 영정에 헌화하고 애도했다.

임항근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 4명은 후배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앞에서 고개를 떨쳤다.

임 과장은 “소방대원들이 화재나 재난 현장을 대응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사명감과 책무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이라며 “근무지는 다르지만 후배들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어 빈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 □ 순직 소방관 애도물결

“자기 몸도 생각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관 2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난 2일.

고(故)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오후 2시 기준 방문객에 적힌 조문객은 500여명에 이른다.

다만 유가족 측에서 고인을 조용히 보내드리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해 장례식장 앞 취재진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대기했다.

검은 복장을 한 조문객들은 애절한 표정으로 수없이 늘어난 근조화환을 지나 빈소로 들어섰다.

경북소방 119특수대응단 대원 30여명이 2층에 차려진 김수광 소방장의 빈소에서 절을 올리자 “아이고 아이고”하는 곡소리와 함께 주변은 삼시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김 소방장의 아버지는 “남들보다 자기 몸도 생각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라며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어머니는 “우리 수광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사고 현장에서 꼭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주세요”라며 울부짖었다.

순직 대원의 지인들은 두 대원 모두 밝고 긍정적이었다고 회상했다.

박 소방교와 훈련 동기라는 한 소방관은 “힘든 훈련을 할 때에도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주던 형이었다”고 말했다.

김 소방장과 직장 동료였던 한 소방관은 “항상 밝고 고향에 가면 술 한잔 하자고 먼저 찾아주는 좋은 동생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 □ “열정과 선한 영향력 준 사람”

문경시 육가공업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고(故) 박수훈(35) 소방교의 지인들은 2일 “열정이 넘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며 그를 회상했다.

고향이 상주인 박 소방교는 특전사 중사 출신이다. 태권도 지도자로서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도 뒀던 그는 2021년 8월 그토록 바라던 소방 공무원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 구조 분야에 임용됐다.

박 소방교에게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예리(23·여)씨는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수훈 코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 인생의 스

승으로 여길 만큼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전했다.

첫인상에 대해서는 “열정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며 “2016년도쯤 태권도장에 코치로 왔었는데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훈련 스케줄을 다 짜왔다.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기억했다.

이어 “코치님은 책임감이 강한 분이였다. 제자의 일을 본인 일처럼 도와주고 해결해 주려던 분”이라며 “내가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수훈 코치 덕에 정신 차리고 내 꿈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운동했던 건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다. 이후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서슴없이 먼저 안부를 물어봐줬다”고 했다.

나아가 “특전사나 부사관, 소방공무원 등을 준비한다고 하면 체력 준비 등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같이 해줬다”며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싶으면 잡아주는 역할도 했다. 흔한 체벌 한번 없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간 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말 친근감 있게 다가와 주고 힘든 일을 도와주려 노력했다. 모두에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심어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박 소방교의 사고 소식을 접한 이씨는 “코치님의 목소리와 그 친절한 행동과 배려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다. 뉴스로 먼저 소식을 접했지만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이씨는 “최근 태권도장에 같이 운동하는 언니 결혼식에서 만나 커피도 한잔했었다. 아직 너무 생생하고 믿기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 화재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속상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나는 항상 수훈 코치 같은 멋지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존경했다. 그동안 살면서 고생 많았는데 좋은 곳으로 가서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지인은 그를 “장난기 많고 술선수범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울산소방서 소방관 이모(30대)씨는 “나는 소방 97기 훈련 1조 동기다”라며 “박 소방교는 평소에는 장난기가 많았지만 훈련에 임할 때는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책임감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목소리도 커서 훈련 때마다 동료들에게 기합을 넣어주며 술선수범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박 소방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과거 그가 ‘허릿차’라고 외치며 춤을 추다가 발치기하는 동영상도 게재돼 있었다.

2022년 1월 게재된 영상 중 ‘경북소방’이라고 적힌 특수복을 입고 장난기 어린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미혼인 그는 평소에도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조직에 큰 애착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소방관 순직 10명 중 7명, 샌드위치 패널 화재...

2014~2023년까지 10년세월  
위험직무 투입 순직 소방관  
40명으로집계 참변언제까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을 막기 위해 구조대원을 구조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관 순직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전북 김제시에서 단독주택 화재로 진압하던 고성공일 소방교가 집주인이었던 70대 노인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그는 “안에 활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었고,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임성철 소방장이 제주 서귀포시 한 갈굴 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다 건물 잔해에 부상을 입어 순직했다.

### ■ 화마에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10년 동안 총 55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매년 5명의 소방관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방 인력을 늘려 구조대원을 구조할 추가 인력을 현장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국의 경우 유사시 구조대를 구조할 최소 2명의 인력을 둘 것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를 ‘지휘관 재량’에 맡기는 탓에 ‘구조대원의 구조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구조대원 구조대’는 미국과 달리 소방관이 고립되면 쪼러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 시간만 해도 20~30분이 최소한 소요되는데 그동안 고립된 소방관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화재 훈련을 늘리는 등 소방 인력 교육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은 실제 큰불을 내고 그곳에서 훈련하는 실화재 훈련장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실제 큰불이 났을 때 이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화재 훈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용호 의원 자료를 보면 2011~2022년 1월까지 순직한 소방관 55명 중 임용 0~5년 차가 24명(43.6%), 6~10년 차가 11명(20%)으로 60% 이상이 10년 차이 이하 소방관이었다.

이번에 문경 화재 사고로 순직한 김수광 역시 2019년 공개경쟁채용으로 임용된 6년 차 소방관이었다.

반복되는 비극으로 소방관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 소방노조 “소방관의 안전도 지켜야”

문경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지난 1일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27)의 한 유가족은 “수사당국이 감식을 통해 조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폭발 원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순직한 소방관 2명의 발인이 진행되기 전인 3일 오전 김수광 소방장의 빈소에서 만난 한 유가족은 “최근 소방노조 관계자와 만나 폭발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광이는 어떤 적부터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 돕는 아이였다. 그런 성격을 가진 수광이가 군 복무를 마칠 때쯤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말을 잊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구조자가 있으면 소방관은 구조하러 들어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방관의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구조 현장에 투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투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이 불확실한 속



3일 오전 경북도청 동력관에서 엄수된 고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에서 소방관 진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바란다”면서 “소방관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바라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위험·화재수당을 인상해준다고 하는데, 수당을 올려준다고 이런 사고가 없겠느냐”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소방공무원 무늬만 국가직

비극이 되풀이 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은 인력부족 문제다.

전국 소방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약 2만명이 총원대 총 6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 A씨는 “2만명이 총원대라고 하지만, 소방관은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500명이 총원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력난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진 것도 인력 부족의 원인”이라고 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다 보니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다르고,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지휘체계 문제 등이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지자체에서 예산 책정이나 인사권을 쥐고 있어, 사실상 지방직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말은 국가직이지만 아직도 시도에 소속돼 있어 모든 예산을 시도에서 받아 쓴다”며 “예산이 열악한 지방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얼마를 투입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 소방안전교부세 문제 불만...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도 소방관들이 불만을 느끼는 대목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의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교부하는데, 도입 당시 특례조항을 마련해 사업비의 75% 이상은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으로 소방관들은 안전장비 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말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사라지는 데 대해 소방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1년 더 연장됐다.

소방 관계자는 “내년에 특례조항이 연장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방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예컨대 이번 문경 화재현장 사고는 인력이나 예산, 장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장지휘관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해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소방노조 관계자는 “현장 지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의 안전”이라며 “이번 경우처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경우엔 건물 내부 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실전훈련 같은 소방관들이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 교육 훈련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전국에 지방소방학교가 8개 가량 있는데, 지자체마다 교육 내용이 다르다보니 국가 차원의 일괄적인 교육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소방관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에 투입시키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현장 대응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 ■ 순직 10명 중 7명, 샌드위치 패널 화재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이 원인으로 다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로 진압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교통부가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 10곳 중 1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곳만이라도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금지해 대형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및 건설 자재 공장 514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한 결과 252곳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낮은 단가로 물류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때 쓰이지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내뿜어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킨다.

국토부 조사 결과 24곳은 아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의 경우 화재 시 수축 정도를 보는 ‘콘칼로리미터 시험법’ 등 47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화재 성능이 인정된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불이 나면 단열재 부분이 급격히 녹아내려 건물이 빠르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조차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하는 경우가 많다.

### ■ 샌드위치 패널, 불에 급격 수축...

2022년 1월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에선 송탄소방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우레탄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로 불길이 커져 소방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잔물 처리 과정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다시 불이 붙으며 퇴로가 차단돼 광주소방서 소방관 1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전소(全燒)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층과 층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해 화재가 다른 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패널의 심재(강판 안쪽을 채운 단열재) 부분이 강한 열로 인해 빠르게 녹아내리며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은 힘을 지탱하는 심재가 화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에 취약하다”며 “양면에 있는 철판도 열을 받게 되면 뒤틀리고 정된 부분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힘이 없다”고 했다.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육가공업 공장 화재도 4층 규모의 공장 내외부 전체가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버릴 만큼 피해가 컸다.

실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 지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재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30분 뒤 대응 1단계, 25분 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야 할 정도로 불길은 급속도로 번졌다.

불을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박찬용 씨는 “지붕 환풍구에서 불이 나와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까지 불이 붙었다”며 “곧 건물 외벽 전체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도 “불길이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급속도로 번지는 바람에 완전까지 13시간이나 걸렸다”고 했다.

### ■ 규제 강화, 사각지대 많아

부적합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13.7%에서 2022년 9.5%까지 줄어들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계속 발생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2021년 12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로 진압하다가 사망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1명,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서 3명, 이번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 모두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변을 당했다.

현재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지으려면 ‘준불연’ 이상의 자재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인정제도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가 난 건물 역시 2020년 건축돼 품질인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샌드위치 패널의 효율성이 높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불연 소재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미네랄 등 무기단열재를 사용하면 불연화가 가능하다”며 “샌드위치 패널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실제 시공 현장에서 준불연 인정을 받은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화재 현장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합동감식에는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북소방본부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화재조사팀은 무너진 건물 내부를 3차원(3D) 장비로 스캔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은 바닥에 쌓인 기름 막의 폭과 길이를 재며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불이 어디서 처음 시작했고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엄수되고 있다.

3일 오전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엄수된 故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故 김수광 소방교(27)



故 박수훈 소방사(35)

謹  
弔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



3일 오전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엄수된 문경소방서 소속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오열하고 있다.



동료 소방관들이 순직 소방관을 향해 마지막 묵념을 하고 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故 김수광 소방장, 故 박수훈 소방교 당신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2일 경북 문경소방서에 마련된 고(故)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분향소에서 소방관들이 추모하고 있다.



1일 문경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 구조작업을 하다 숨진 소방관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만7000원 저렴

설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5만7000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 평균 29만8392원,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35만4966원이다. 전통시장에서 사면 대형마트에서보다 5만6574원(15.9%)가량 저렴했다.

|                |                |
|----------------|----------------|
| ▲ 코스피 (+72.85) | ▲ 코스닥 (+16.04) |
| 2,615.31       | 814.77         |
| ▼ 엔화 (-7.33)   | ▲ 유가 (+0.95)   |
| 902.35         | 1,591.98       |
| ▲ 환율 (+6.50)   | ▼ 리금 (-17.40)  |
| 1,338.50       | 2,053.70       |

# 경주-영천-경산... 자동차산업 중심도시 힘찬 飛上

## 경북도, 기회발전특구 자동차산업 미래첨단 먹거리 '대전환' 절실

경주-영천-경산이 미래 자동차산업 중심도시로 우뚝선다.

경북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1877개 업체가 있다.

전국 대비 14%를 차지한다.

경북도내 자동차부품업체는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집중해 있다.

때문에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경북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시(경주, 영천, 경산),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자원방안 모색과 수도권 과밀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등 인구감소에 대책 마련 내용으로 열렸다.

지역 자동차산업은 경주, 영천, 경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벨트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체제-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를 촉진,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하다.

특구 내 근로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으로 청년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추게 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한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미래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 대전환 관계기관 회의를 작년 9월부터 수차례 개최해 오고 있다.

2월 말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시군 계획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로 제출한다.

회의에 참석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생태계를 첨단 모빌리티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특정부품·모듈단위의 지역적 특화단지를 탐구하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하고 첨단 모빌리티 부품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제윤 경북도 소재부품산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 내연기관 등 전통적인 자동차부품기업이 첨단 모빌리티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체질 개선과 특화된 전략 수립으로 특구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은 기자



경북도, 필리핀 박람회 매력적인 경북 관광 홍보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2~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4(Travel Tour Expo 2024)'에 참가, 경북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했다. (사진=경북도제공)

## 설명절 코앞... 과일값 천정부지 치솟아 '한숨'

농산물 신선과실 급등  
국제유가가 변수 전망  
설차례상 올리기 겁나  
1월 소비자물가 2.8% ↑

세부적으로 사과(56.8%), 귤(39.8%), 파(30.8%), 토마토(61.9%), 쌀(11.3%), 딸기(15.5%), 배(41.2%)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돼지고기(-2.3%), 마늘(-12.1%), 상추(14.9%), 국산쇠고기(-1.2%) 등은 하락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티셔츠(10.4%), 아이스크림(15.1%), 남자외의(8.5%) 등이 상승했고, 경유(-11.9%), 등유(-8.7%), 유산균(-13.4%) 등은 하락했다. 전기가스·수도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5% 상승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난방비(12.1%) 등이 올랐다. 1월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8.2%), 공동주택관리비(5.5%), 구내식당사비(4.9%), 차권(5.4%), 월세(0.8%) 등이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임차료(-25.2%), 국내항공료(-8.4%), 전세(-0.9%), 유치원납입금(-8.4%) 등은 하락했다.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의 지수는 111.70(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2021년 11월(2.4%)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지수 인식로 물가-에너지 제외의 지수는 110.01(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이 역시 2021년 12월(2.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5.5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0%) 이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중 식품은 지난해보다 4.9% 상승했고, 식품이외 품목은 2.4% 올랐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신산업(생산·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30.6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상승했다. 신선어개와 신선채소는 각각 2.0%, 8.9%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선과실은 지난해보다 28.5% 올랐다. 신선과실은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가장 상승폭이 컸다. 조미경 기자

## 농작물 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수박, 블루베리 등  
보험가입 대상품목  
작년보다 10개 늘어

경북도가 '202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농업인의 경영 불안에 털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은 지난달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품목농협에서 한다.

사과·배·단감·딸은감은 29일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참외 등)과 버섯 4종(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은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품목은 재배시기에 맞춰 별도로 가입하면 된다.

올해는 △노지수박, 블루베리, 무, 파, 밀, 쌀, 시금치, 보리, 시설감자, 당근 총 10개 품목이 늘어난 62개 품목(전국 73개)이 가입 대상이다.

사과대추, 곶감지배추는 전국 가입 가능하다. 사과·배·단감·딸은감의 착과수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향상된다.

대파, 당근 등 일부 품목에 재정식·재파종 특약이 신설됐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 협을 방문하면 된다.



도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내면 된다.

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 2010년에 비해 가입 농가는 5.5배, 지원 예산은 6배가 늘었다.

지난해 전례 없는 집중호우, 저온 피해에도 4만 5000농가가 287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농가들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수준 향상, 가입 대상 보상 품목 확대, 보험가입금액 산정 방식 개선 등 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 건의한다.

보험 가입 확대와 가입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김주영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으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정망을 구축, 경북 농업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사해첫 발표인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전월(3.2%)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4.2%)까지 4%대로 치솟았지만 이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했고, 9월엔 3.7%, 10월 3.8%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11월부터 다시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물은 전년 동월 대비 8% 급등했다.

이 중에서도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5.4% 치솟았다.

## HXD화성개발, 2024년 중대재해 제로선포

원·하도급 상생협력  
중대재해 제로다짐

HXD화성개발이 지난 2일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 현장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을 가졌다.

'화성파크드림 구수산공원'은 대구 첫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했다.

선포식에는 대표이사, 각 현장소장, 안전보건 관계자, 각 팀장 등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70여 명이 참석, 2024 안전관리 중점추진과제 등의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안전법규준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수준 향상 △원·하도급 상생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실현을 다짐,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발표했다.

HXD화성개발은 현장직원 및 본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8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총괄하는 회사내 안전실과 현장간, 회사 및 현장과 협력업체간의 안전교류를 통해 최고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안전실장은 "원·하도급 상생협력과 스마트 안전보건 활용, 근로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 현장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에 앞장서 앞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XD화성개발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운동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의 정착과 동반성장 경영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 한수원, 탄소중립 시대 선구자 역할 '톡톡'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과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수원과 3개 발전회사들은 지난 2일 한수원 방사선보전원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희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건설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원은 양수발전과 관련한 기술정보 및 지체해 현안사항을 공유, 각종 인허가 대응 등 긴밀히 협력한다.

양수발전의 경쟁력을 강화,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 결과, 6개 지점에 4개의 사업자가 선정됐다. 윤용환 기자

## 오늘 경북도청서 경북 우수제품 큰잔치 열려

2024 설맞이 도청 특판전  
자활기업 등 63개사 참여  
행사 제품 최대 30% 할인

'2024 경북 우수제품 특판전'이 5일 경북도청 가운데마당(본청 뒤편)에서 열린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소비 촉진과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도 중소기업 인증브랜드인 실라리안 기업과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기업, 자활기업 등 63개 업체가 참여한다.

판매품은 가공식품, 간편식, 농·수산물 제수

용품, 목공예품 등 200여 개 제품을 현장에서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무료 시식·시음회 진행,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팡 없는 추억의 뽑기 게임으로 사은품 증정 등 행사장 방문 고객들이 행운을 잡는 재미도 선사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특판전에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제조·생산한 우수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사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함께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경로당 행복선생님 대상 치매 역량강화 교육

경주시치매안심센터는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소속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을 대상으로 치매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교육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

견해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인지행동증상과 원인,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안내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도 설명했다. 치매 조기검진과 지원 서비스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치매안심센터(054-760-2950~2)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상권 살리는 해법은 빈점포 줄여야...

주낙영, 빈점포 창업지원 금리단길 먹거리·불거리 길거리 넘치도록 지원

경주시가 내놓은 장맛집 청사진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집계된 중심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했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권르네상스사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2차년도 사업성과와 3차년도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상권 내 미진한 거리환경 개선을 지속, 올해는 빈 점포 창업 지원과 먹거리로의 업종 전환에 집중, 금리단길에 먹·불·즐길거리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추진단, 경주시 중심상권 활성화 협의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심상가상인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업을 보면 신라대중 빛광장과 중심상가 빛거리, 멋거리 조성 사업을 지난해 착수, 이달 준

공을 앞둔 '금리단길 빛테마 거리' 조성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사업으로 빈점포 대상 점포 12곳을 창업지원했다. 점포 10곳을 스타점포를 개발,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골목야시장 불금예찬'을 비롯해 거리예술위크, 아트페스타, 청소년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열며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금리단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마케팅교육 등 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보고회에서 중심상권 활성화의 최대 과제는 상권 내 유동인구 증대와 점포 공실 해소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예산 24억 5000만원을 들여 이 같은 문제를 푸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결과 보고회에서 의견을 반영, 이달 내에 3차년도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시는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5개년 전체 사업비 80억원 가운데 2022년 9억 3000만원, 2023년 23억원 등 2년간 3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경주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배움 욕구 충족

평생학습가족관, 신입생 모집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시민 대상 '2024년도 경주시 평생학습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4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도 모집한다.

평생학습가족관, 신입생 모집

평생학습대학은 정원 가꾸기 관심 증가 '마을 정원사 양성과정'을 개설, 식물·정원 기초이론과 현장답사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민사회 교양증진을 위한 '생활·전통예절 교육과정'을 개설, 전통예절과 현대 생활예절에 대한 이론·실습 방식으로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5일 오전 10시부터 2월 23일 오후 5시까지 '평생학습포털경주 사이트(http://www.gyeongju.go.kr/gill/main)'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www.gyeongju.go.kr/gill/main)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과목별 수업 시간, 수강료, 수업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고 또는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054-779-8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숙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장은 "앞으로 다양한 시민의 배움 욕구를 충족하고 질 높은 교육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고 밝혔다.

2024 '영양플러스사업' 모집

경주시보건소가 2024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부 및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생활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임신

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세 미만)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한 경주시 거주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년간 생애주기와 특성에 따라 매월 쌀, 감자, 당근 등 영양보충 식품의 지원과 맞춤형 영양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에만 2000가구, 2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054-779-8651)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주 경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과 자라나는 영유아에게는 풍부한 영양소가 담긴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취약계층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한다.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방안 밑그림 나왔다

7200여세대 전체 배관 공사비 1058억원 추정 2036 배관공사 마무리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의 최적 로드맵이 그려졌다. 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경주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동경주 주민대표,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 용역사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은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등 3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마을 형태별 적합한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개발하고 향후 원자력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용역결과는 3개 읍면의 100m당 4세대 이상 마을, 주배관이 지나가는 마을 등 72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배관(70km) 및 공급관(171km)에 대한 전체 배관 공사비는 1058억 원으로 산정했다. 공사기간은 2025년부터 주배관 공사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4세대 이상 마을과 주배관이

지나는 마을 등에 공급관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했다.

배관공사 완료 후 내관-인입배관의 자부담 비용은 7200여 세대에 총 313억 원으로 한세대당 432만 원 정도로 추정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대안을 제시하며 지치단체와 주민의 설치부담 비율을 안내했다.

앞서 시는 지난 해 9월 착수보고회 이후 여러 차례 설문조사와 상담을 포함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가스 연차별 계획, 자기부담 가능 금액 등을 알리고 소통하는 등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사업 검토로 향후 서라벌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동경주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동경주 지역 발전과 향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주낙영, 월성원전 주민 피해 정부 나서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철용 시의회 의장, 김남용 월성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도 함께했다. 주시장은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이후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했다.



포항 울진 영덕 울릉



영덕군청

영덕, 효도수당 연 2회 '15→30만원' 상향

영덕군은 효수당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군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 이혼집에 속해 있으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울진군 희망2024 나눔캠페인 모금액 올해도 최고기록 경신

울진군의 이웃사랑 성금 모금액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군은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종료한 결과 당초 목표액 3억24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9억6800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주축으로 실시한 범군민 성금 모금 행사와 10개 읍·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두캠페인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군민들의 시민의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포항축발지진 소송 신청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축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참여대상이지만 고항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울진농수특산물’으로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세요

‘울진물’ 설맞이 할인기획전 경북쇼핑몰 사이소와 통합운영

울진군은 농·특산물 홍보 및 다양한 판매망 구축으로 ‘울진물’ 운영에 공들이고 있다. 군은 2022년 6월부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 및 다양한 판매망 구축을 위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울진물(https://ujmall.cyso.co.kr)을 운영 하고 있다. 다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처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생산농가의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쇼핑몰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고자 울진물과 경북도 단위 쇼핑몰(사이소)을 통합해 운영 하고 있다. 울진물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2일부터 신규가입 회원에 대상으로 3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30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설맞이 할인기획전은 운영해 울진지역 농가 매출 활성화 및 명절 분위기를 띄우는 등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울진물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관내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라면 입점 가능하다.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서 울진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 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하여 입점 할 수 있다. 입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울진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할인 이벤트, 할인쿠폰 이벤트, 특가 소비촉진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배송비 할인쿠폰 발행, 제휴채널 할인쿠폰 발행, 입점농가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 등을 한다.



울진물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한 브랜드 검색 광고, 온·오프라인 및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 홍보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고객 유입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명절맞이 할인 기획전도 진행한다. 지난 1월 기준 44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204개 상품이 등록돼 있다. 주요 상품으로는 「광천김과 울진 대게가 만난 대한민국 명품 대게김」, 「다양정의 와송식초·와송증·와송조청」, 「주신수산식품(주)의 붉은대게살」, 「농업회사법인 대성(주)의 스낵누룽지 5종, 양파즙, 핫개즙, 배도라지즙, 백숙밀키트」, 「영신곳

간의 참기름, 들기름, 볶음 참깨」, 「우진로컬센터의 울진대왕문어, 자숙문어백골뱅이 반반세트」, 「강원자연어물의 울진자연산돌미역, 건조가자미, 마른오징어」, 「울진바다소리의 손질가자미」 등이 있다. 울진물에서의 신규고객 유입 유도 및 신규입점 농가 발굴을 위해 울진물 대표 이벤트 발굴 및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울진군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를 위해 직영 판매점을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죽변해안스카이라인 등 2개소 운영 중이다.

위탁 운영 판매점을 덕구원천 농특산물판매장, 울진왕피천케이블가 탐승장 내 등 2개소 운영하는 등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값싼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판매장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청정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의 고장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엄선하여 추천하오니, 고품질의 우수 농·특산물로 귀하신 분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달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항시,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9~12일까지 15개반 356명편성 종합상황실 운영, 시민불편 해소

포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귀성객이 즐겁고 불편없는 설 연휴 보내기에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번거롭고 활력 넘치는 명절 △시민이 안전한 명절 △불편없는 즐거운 명절 △모두가 따뜻한 명절 등 4대 대책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연휴 첫날인 9일부터 12일까지 재난·재해 관리반, 경제분야 비상상황반, 교통수송 대책반, 청소관리·환경감시반, 도로관리반 등 15개 반 356

명으로 편성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등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해상 스카이워크, 청하공진시장,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호미곶, 죽도시장 등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시설물의 안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안내소와 교통대책반을 운영해 시민·관광객 불편 최소화해 힘쓴다. 동절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발에 대해서는 산발방지대책반부를 운영해 지역 내 산발 취약지 순찰 강화, 실화 방지 홍보·계도 실시, 유관기관 협력 등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체제 구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휴기간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기동반을 편성해 생활·음식물쓰레기 투기에 대한 사항을 대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응급의료 서비스, 비상급수와 같은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야간담당별 비상체계를 유지해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비상 근무자가 접수 후 담당자에게 인계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전 점검해 연휴기간 시민들의 민원사항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민들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포항시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빈틈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목재문화체험장, 2월 1일부터 정식 개장

영덕군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목재를 통한 다양한 생활용품 제작과 목재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영덕목재문화체험장을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영덕목재문화체험장은 1층 목공체험실과 2층 목재놀이체험실로 구성된 목공체험실의 경우 유아부터 성인까지 친자연적인 목재를 이용한 반제품 DIY 제작, 미니어처 셀프 제작, 우드 펜 제작 등 다채로운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다. 숲과 목재를 테마로 한 어린이 놀이공간인 목재놀이체험실은 목재 미끄럼틀, 목재 징검다리, 볼풀장, 목재 큐브 놀이장, 휴게실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해당 기간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

과를 반영해 재정비하는 등 정식 개장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정식 개장을 맞아 1층 목공체험실과 2층 목재놀이체험실 입장료를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0% 할인하는 특별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정식 개장으로 영덕군민이나 관광객들께 친자연적이고 정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목재 문화와 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체험장은 명절 연휴와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원활한 체험과 운영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당일 현장에서 접



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https://stayydg.go.kr/forest) 또는 영덕군 산림과(☎054-733-8805)로 문의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설 명절 맞아 청렴 실천 캠페인 실시

영덕군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한 당신이 영덕군의 얼굴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1일 청렴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광열 영덕군수는 간부 공무원, 담당 부서 직원들과 함께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캠페

인을 진행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 정략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 홍보물과 상징물을 배부하며 청렴의지를 굳게 다졌다. 영덕군은 이날 캠페인 외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지역 내 청렴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청렴 퍼포먼스, 청렴 다짐 인터뷰, 전통시장과 상가 장보기 청렴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민관협력형 청렴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청렴이 곧 영덕의 미래'라는 문화를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관광인프라 확충 위한 타당성조사 등 주민설명회 개최
울릉군은 관광인프라(친환경 이동수단)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운영계획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26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울릉공항 개항 이후 100만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인프라인 친환경 이동수단 확충하기 위한 케이블카 기본계획과, 검토 중인 노선의 타당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파생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협조한 울릉도 관광지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해당 계획이 시행 되었을 때에 변화된 울릉도를 예고했다. 구체적인 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광지 및 이동이 빈번한 장소, 케이블카 운행 간 걸릴 수 있는 경관적인 측면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최적의 노선을 검토했다.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투자자가 투자 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노선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울릉, 2025년 국비 확보 전략수립 교육 실시

울릉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국비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교육을 개최했다. 군은 기획재정부에서 다년간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현재 경북도 재정 협력관으로 재임중인 정복환 시기관을 초빙해 전반적인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과 중앙정부의 예산 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중앙부처 설득 방안 등 현장 실무를 통해 터득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는 경북도 윤선국 국비예산담당장도 참석해 국가투자예산 편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전략을 공유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시장은 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주요업무와 현안을 논의하고, 오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직원정례회에 참석해 공직기강 확립과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5일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한다.



### 영천,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천시와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는 범국민적 활동이다.

영천시는 지난 1월 24일 온기나눔 영천시 추진본부 발대식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영천시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임원 등 봉사자 40여 명이 함께 연탄 300장을 복지정책과의 추천을 받은 1가구에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연탄을 한장씩 손수 배달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나눔으로 하나 되는 영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 고령군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가제

고령군의회는 지난 2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 경상북도지사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군의회는 이날 의정실에서 김상영 대한적십자 경북도지사 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적십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고령군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했다. 배영백 기자

# 영천시민 성금,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 영천, 지정기탁 성금 활용 시민체감형 신규시책 추진

영천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된 시민들의 성금을 활용하여 저소득 학생,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시민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정부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와 늘어나는 사회복지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된 성금 2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해 '2024년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 시행되는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은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65세 미만 틀니 지원', '65세 미만 임플란트 지원',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불편 해소 사업', '결식우려 가정 밀반찬 꾸러미 지원'까지 총 6개 사업이 시행된다.

### ■저소득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생계, 의료, 주거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영천형 긴급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정부 복지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보호해 영천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위기 사유가 발생한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상담을 거쳐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65세 미만 저소득층 틀니, 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틀니 최대 200만원, 임플란트 최대 100만원) 해당 사업은 복지 재원 누수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된다.

###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불편 해소 '행복더드림'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능력이 부족한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 배관 등 소규모 집 수리와 함께 방역, 청소 등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시민의 불편함을 복지인력이 직접 해소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영천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연계 협력해 운영됨에 따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복지지원의 역량 강화에 큰 효과를 보인다.

### ■결식우려 가정 밀반찬 꾸러미 지원

저소득 결식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총 4회 밀반찬 꾸러미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영천시니어클럽, 영천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내 복지자원의 참여로 운영되며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기부자의 온정을 담은 밀반찬을 제공한다. 최은하 기자

##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대학과 간담회 가제

경산시는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경산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한다.

이번 간담회는 △1일 경일대학교, 호산대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2일 대경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5일 영남외국어대학교, 영남대학교, 대신대학교 △7일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간담회 첫날, 조현일 시장은 경일대학교와 호산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덕담을 나누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다. "지방인구 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인구 기저의 문제인 저출생에서 기인하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사회적 이동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현일 시장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특성화된 교육시스템,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등이 아메니티(amenity) 형태의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고, 아이를 낳고 사는 '지역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의 힘찬 발걸음을 대학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운 기자



## 경산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모금 역대 최고

62일간 14억1천원 모금 진행 6년 연속 목표액 100% 달성

고물가·고금리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경산시민의 이웃 사랑 열기는 막지 못했다.

경산시는 희망2024나눔캠페인 14억 1천만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15도를 달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12억 2천만원의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 희망2024나눔 캠페인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모금액 14억 1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캠페인 모금액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 중 최고액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금 열기가 오히려 뜨거워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년째 이어진 경기 침체로 모금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됐지만 경산시에서 두드러진 기탁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하고 확산한 결과로 보인다.

한해 내내 고사리손에서 나온 동전을 모아온 유치원생들의 저금통이 온도탐을 밝혔다.

각 기관·단체·기업들, 각종 시상금을 선뜻 내놓은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으로 사랑의 온

도답을 가득 채워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성금 기부 외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해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들에 따뜻한 정을 보냈고, 연탄·감자 배달 등 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노력이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뜨거웠던 관심과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과 기업·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소중한 사랑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 영천시의회, 상임위별 2024년 주요업무보고 2일차 실시

###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안전확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광역화 추진

영천시의회는 지난 1일 상임위별로 소관부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2일차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인구교육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서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원순환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순서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주요질의답변에서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 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배수에 부위원장은 수의계약 총액 상한제가 공사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용역부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우애자 의원은 미소지음, e편한세상 아파트 거주 학생의 통학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통학지원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추진하기를 주문했다.

이어 이영우,이영기 의원순으로 이어졌다.

### 고령군, 경북도개발공사·매입임대주택 30호 건립추진

###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고령군은 지난 2일 고령군청 가야금방에서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경북도개발공사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과 사업추진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대한 고령군의회 의결 후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정 및 약정 매입공고 등 신속한 업무추진을 이행을 나갈 계획이다.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해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영백 기자

### 청도군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으로 훈훈한 정 나뉨



청도군의회는 지난 2일, 새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청도노인복지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인 도담도담마을돌봄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효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두 군데의 시설을 방문해 이용객 수와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종사자들과 소통하면서 노고를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훈훈한 덕담을 나누며 위문했다.

김효태 의장은 "명절기간 동안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다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시설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 의성군 생활쓰레기 수거 설 연휴 관리대책 추진

의성군은 '설' 연휴 생활쓰레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과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의성군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지역(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의 경우 연휴 중 설 당일(2월 10일)과 일요일(2월 11일)에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 외 기간은 평소처럼 정상 수거한다.

연휴 전후로 생활쓰레기물 요일·성상별 배출제와 상관없이 일괄 수거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행 지역인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면에서는 면 자체 일정에 따라 수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이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연휴기간동안 쓰레기처리 대책반과 대령업체 및 읍면에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설 연휴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에 힘쓰겠다"라며, "주민들께서도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설 연휴 의료공백 방지 구미 응급진료체계 운영

구미시는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 방지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병원, 약국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응급의료기관 3개소, 당직의료기관 50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61개소를 지정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구미차병원, 구미순천향병원, 구미강동병원 3개소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며, 병원 50개소와 약국 61개소는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현황은 구급 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응급의료 포털(www.e-gen.or.kr), 시청과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응급의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e-gen)'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 문경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읍·면·동별 4개조 편성 순환 근무 등산로 13곳 폐쇄, 산불예방 집중감시원 92명 배치 진화대 비상대기

문경시는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202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문경시청 산림복지과에 본부를 설치하고 읍·면·동별 소속 직원 4개조를 편성해 순환 근무 체계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발령하며 단계별 대응태세를 강화하게 된다.

금년은 2월부터 4월까지 기온·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돼 예년 봄철과 유사한 수준의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불발생관련 산림청 발표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발생건수·면적은 596건 4천922ha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 567건 4천33ha보다 각각 5%·25%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170건(29%)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72건(12%), 논·밭두렁 소각 57건(10%), 담뱃불 실화 54건(9%), 건축물 화재 41건(7%) 순으로 나타났다.

문경시는 적극적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관내 등산로 13개 노선(69.5km)을 폐쇄한다. 입산통제구역(3만3763ha)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3672ha)을 지정한다.

또한 주요 등산로에 산불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는 산불조심 깃발 등을 게시하여 산불예방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산불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읍·면·동별 기간제 근무자로 이루어진 산불감시원 92명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집중감시해 산림 중요 거점에 위치한 감시초소 2개소와 감시탑 10개소에 중점 배치된 감시원은 구역별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을 비상대기시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의 능력향

상 및 전문화를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불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진화장비 고도화를 위해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확보해 사전대응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상주시와 공동으로 헬기(3400L급)를 임차하여 산불확산 저지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매년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 논밭태우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동수 기자



## 의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개소

###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의성군은 지난 1일,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은 재택의료팀을 포함해 보건소 직

원 30명 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재택의료팀 소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퍼포먼스(희망의 다짐 구호 외치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작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공

모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기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연계·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택의료팀(공중보건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구성하여 의성읍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자에게 의료·간호와 방문진료, 방문간호,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가정에서 부담없이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 문경시, 새해에도 장학금 기탁 이어져

### 지역인재 양성·교육발전에 관심 장학회 글로벌 인재 성장토록 최선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재)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문경시산림조합에서 장학금을 1500만 원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새재환경과 화인시스템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새재환경은 지역의 폐기물 처리 및 재생 재료 가공처리 업체로 2015년 1000만 원, 2022년 500만 원 기탁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화인시스템㈜은 산양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 업체로 이번엔 지역에 장학금 첫 기탁으로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외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문경지회 200만 원, 점촌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100만 원, 전국건설기계경영협의회 100만 원, 오정암 주지 및 반야회 100만 원, ㈜제이앤씨디자인 300만 원, ㈜태양 300만 원, ㈜성문이앤지 500만 원, 점촌5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만 원 등 많은 사업체와 단체에서 장학금을 기탁했다.

(재)문경시장학회 신현국 이사장은 "2024년 새해부터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에 관심이겨주시고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 상주시 中企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확대

### 대출이자 지원 4%로 상향 조치 최대 5억 용자 자금난 해소 기대

상주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용자 추천을 통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비율을 작년 3%에서 4%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상주시 내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11개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업체는 기업체당 최고 3억원, 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기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용자 한도로, 1년간 대출 이자 4%를 지원한다.

시는 작년 2023년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231억을 운전자금으로 용자해 4억 9천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 1월부터 신청을 접수 받기 시작해 현재 18개 업체 용자해 57억 5천만원을 추천 완료한 상태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 054-537-7412)에서 전화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상주시는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 구미 선산출장소 2주차장 임시 개방 설 명절맞이 귀성객·주민 편의 제공

### 주차구역 97면...3월 정상 운영

구미시는 지난 2일부터 설 명절을 맞이해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을 임시 개방했다.

이번 임시 개방은 설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선산을 동부리 466번지 일원에 조성됐다.

면적은 4519㎡로 주차 면수는 일반 82면, 경차 10면, 장애인 3면, 입산부 2면 등 총 97면이고 3월 중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으로 선산출장소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산을 행정복지센터, 선산보건소, 선산파출소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상권밀집지역에 위치한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시 개방으로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상 운영을 통해 지역의 교통을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창립 3주년 기념식서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일 김천철내수영장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개최와 함께 소비자중심경영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내 부행사로 개최돼 공단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해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단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기념식은 창립 3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객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Centered Management)도 선포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에서 소비자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철학이다.

공단은 소비자중심경영 선포를 통해 고객의 행복과 만족을 실현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년 2월 설립된 공단은 김천시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김재광 이사장은 "우리는 시민과 시설 이용자의 요구에 발맞춰 매일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청렴, 친절, 주인정신을 바탕으로 공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5일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안동성좌원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소외계층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오도창 영양군은 5일 오전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 청송소방서 동계수난사고 대응 특별구조 훈련 실시

청송소방서는 지난달 31일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동계수난사고 대응 특별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빙기 내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들의 전문성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훈련 내용으로는 △동절기 수난사고시 수중탐색 및 인양 구조기법 숙달 △안전전철차 및 동계 수난 이론 교육 △동절기 수난 장비 사용법 및 관리요령 등이다.

윤병문 기자



### 예천, '희망24 나눔캠페인' 통해 이웃돕기 성금모금

예천군은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통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결과 기부금 4억6800만 원을 모아 당초 목표액의 11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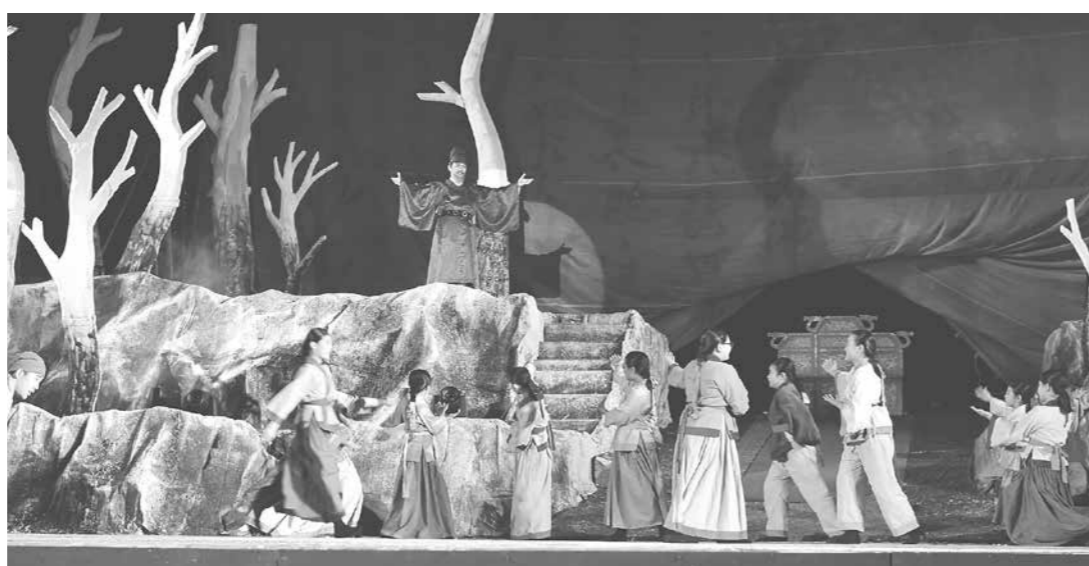
예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기부로 나눔을 가지게, 기부로 예천을 가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으며 1,287건 468백만 원이 모여 당초 목표액 417백만 원보다 5천백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모금에는 지역 내 기업·기관·단체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호명면에 거주하는 부부는 매년 아이 생일 때마다 100만 원을,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은 용돈을 절약해 모은 돈 65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2024년도 이웃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뜨거운 온기를 나누는 기업, 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금한 성금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고루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병욱 기자



## 영주시, 전 세대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건설

### 시민행복 '위한 문화예술 변화' 예고 정체성 살리는 콘텐츠 개발에 매진

영주시가 올해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시는 지역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선비문화를 대표로, 전통의 보존·계승과 함께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예술 사업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발표했다.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선비문화 콘텐츠 활용 사업 모색

시는 선비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향교와 유교문화 단체들을 중심으로 '향교 문화 전승 보전 지원'과 '명륜당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선비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선비가 유치원에 간 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유립과 유치원이 멘토·멘티를 맺어 유학과 동요를 상호교습하고 플라마켓과 선비극 판 전시회를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세대 간 장벽을 낮추고 서로간의 이해와 문화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딱딱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선비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친근한 '선비 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전통문화 계승·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영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역사 인물인 삼봉 정도전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정도전'과 지역에 남아 있는 전통과 가치를 담은 음악극 '상여소리'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과 음악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영주의 문화 가치와 역사적 자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도비 지원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일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시민 문화 동아리 지원 △아동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도모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문화인 영주 365 △영주 문화예술 놀이터 △문화인 영주 양성소 등 세 가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새로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사업은 '마을형' 분야의 소규모 사업으로 역사관 및 학사 골목 재생 등 휴천동 일대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지역 재생과 함께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함께 느끼고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록 할 계획이다.

### ■젊은 문화가 샘솟는 도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영주

학생들과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영주시가 처음 개최한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처럼 획기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참가하는 '청소년 예술축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 학생과 청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다양한 시민 참여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올해 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5월에는 '안동에서 놀자' ... 상상이상 축제기획

###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주제 및 슬로건 확정

안동의 봄은 즐거운 상상을 예약했다. 안동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열리는 '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와 어린이날 여행주간에는 테마파크형 축제에 기획하고 있다.

7개의 랜드로 조성될 축제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놀이 천국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 선임된 신현식 총감독은 축제의 주제를 K-PLAY 안동랜드로 설정해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안동으로 초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민속놀이를 재해석한 놀이 콘텐츠를 축제장에서 게임으로 즐기며 승점 포인트를 획득해 선물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서는 20여 가지의 게임콘텐츠와 연희 공연, 연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퍼포먼스랜드에서는 집단 참여놀이와 안동

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비롯한 차전놀이 대동난장이 관광객 참여형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 탈춤공연, 중앙선1942 안동역, 원도심 일원이 신명 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장으로 조성돼 참여자들에게 신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오! 상상이상 안동에서 놀자!'로, 푸르른 오월 상상 이상으로 재미나고 즐거운 놀이를 가족과 함께 즐기고 싶은 이들을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의 대표 봄축제인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K-콘텐츠 대표 놀이축제로 육성해 안동의 민속을 글로벌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가족과 함께 안동에서 상상 이상의 즐거움으로 민속과 놀이의 테마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 미래 유도 국가대표 영양군 총 집결

### 영양군 유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 영양군 전지훈련 4억원의 경제효과 달성

영양군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유도 전지훈련을 무사히 종료했다.

'24년의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은 미래의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품은 아이들의 당찬 포부와 함께 시작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와 추위 속에서도 체육관의 열기는 식을 줄몰랐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훈련은 전국 유도부의 합동 훈련으로 진행됐다.

각선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려 전국 국내의 대회를 대비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뤄졌다.

이번 동절기 전지훈련은 전국 55개의 학교에서 836명의 선수 및 코칭스텝이 참여해 이는 4억 원의 지역 경제효과를 일으켰다.

해마다 참가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영양군 유도



전지훈련은 주최 측인 영양군 체육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영양을 찾는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선수들을 "영양군은 전지훈련시설이 훌륭할 뿐 아니라 선수단의 활동에 편의를 위한 협력과 지원으로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추운 날씨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번 동절기 유도 전지훈련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기쁘다"라며 "이번 전지훈련이 어린 선수들에게 한 해 좋은 성적을 낼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 봉화군, 설 명절 대비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 차량과 사람 대이동 대비 AI·ASF 차단 방역관리 강화



봉화군은 설 명절을 맞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가금농장에서는 전국적으로 23·24년 동절기 기간 30차례에 걸쳐 AI가 발생했다.

최근 봉화군도 영덕군과 경기도 파주시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설 연휴기간 동안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적터리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소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귀성객의 왕래가 빈번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입구에는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축협 공동방제단과 군 방역차량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과 농장 출입구 주변에 대해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 설 명절 동안 귀성객과 차량이동이 많은 만큼 '고향방문 시 축산농가 출입자제·농장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홍보 현수막을 읍면별로 게시하고, 가금 및 양돈농가 전염병 발생정보, 방역수칙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봉화군 계관환적장에서는 하루 120만 개가 생산되는 전국 최대의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 계란이 차질 없이 환적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해 수요가 많은 설명절 계란 수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모임자제, 농장 내부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약 4주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교체 등 업장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총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 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총비용의 50% 내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또는 장비·비품 교체 비용 2백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현직 확인·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예천군청 지역경제과(☎650-685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안병욱 기자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다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열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4·10 총선과 국정 농단

임정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인들에게 ‘국정 농단’은 어느새 꽤 익숙한 용어가 됐다.

농단(壟斷)이란 맹자의 공손추(公孫丑) 편에 나오는 용어로, ‘교활한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국정 농단은 ‘권력을 틀어쥐고 엄중한 나라의 일을 장난치듯 멋대로 처리하며 사익을 쫓기는 행위’쯤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정 농단은 근래 입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하고 정권까지 바꿔 버린 무서운 내용과 뜻을 지닌 교훈과 역사적 함의로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국정 농단이란 프레임을 걸어 남을 무너뜨린 주체라면 본인 스스로는 똑같은거나 비슷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상식이자 도리다.

정적을 끊임없이 몰아뜯고 몰아붙여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들어 기어아 끌어내린 정치인이 설혹 세부 내용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원리적으로 비슷한 종류의 일을 자행하면서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고 양심이나 도덕마저 팽개친다면 정치 이전에 인간성부터 살펴봐야 한다.

남의 행동을 비난해 놓고 본인도 똑같은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는 내로남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주범

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작동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와 수장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 또는 교체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제도 또한 많은 문제와 모순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게 순리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기존 방식의 흠만 계속 들추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선거 제도와 방식은 민주주의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므로 공정성, 안정성, 대표성, 일관성 등의 제반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70일도 안 남은 시점까지 전체 의석의 15% 이상(300석 중 47석)을 차지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을뿐더러 어떤 식으로 낙착될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압도적 다수당과 그 대표의 횡포이자 농단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4년 전에 무리하게 채택한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모순은 있지만 더이상 논의 할 시간이 없으니 한 번 더 시행하기로 하

든지, 아니면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든지, 그도 아니라면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든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시각각 변하는 선거 관세를 좇으며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총선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느라 나라의 뼈대에 속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제도를 선거일 임박 시점까지 일부러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정 농단이다.

이런 작태를 보고 사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시키는 농간이 아니라고 반박할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사자 본인들 말고 누가 있겠는가.

국회의원선거는 출마자와 정당들에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제도이자 절차인데도 4·10 총선은 시합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시합 날짜가 임박하고 있는 운동 경기 같은 신세가 됐다.

이제 와서 전 당원 투표에 부치고, 그렇다고 그 결과를 반드시 채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재명대표에게 정권을 부여한다니 도대체 뭘 하자는 꿈꾸어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불과 몇 년 전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을 국정 농단으로 몰아 가혹하게 심판한 국민과 유권자들이라면 지금처럼 사익을 위해 공익을 도외시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정당과 그 대표를 투표로 준엄하게 응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유권자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굳게 믿는다.

오늘의 정치 논평

승고한 희생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밤 화재 진압에 나섰던 故 김수광 소방교, 故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대원이 순직하셨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두 소방 영웅들의 비보에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화마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두 소방 영웅과 지금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영웅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제란의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 영웅에 대한 예우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 가득한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다하는 소방대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영웅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대책과 소방관 처우 개선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 김수광 소방교, 故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 영웅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승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방관 처우개선 공약 전에 사과부터



최혜영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소방관 위협수당 대폭 인상,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도입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문경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관분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약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소방관 총원 예산을 끝내 반대하며 소방관들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내세운 주장이 “놀고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소방관들은 당시 이장우 의원의 발언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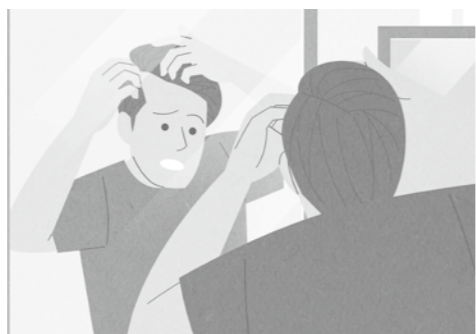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소방장비 개선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폐지를 추진했는데 이를 국회가 1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소방관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지킬 것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방공무원의 처우만큼이나 인력 총원이나 소방장비 개선 모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순직에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제언

탈모인구 1천만 시대... “40살 넘으면 매일 머리 감지 마시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세상의 절반은 탈모인, 나머지 절반은 탈모 예정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0대 이상일 경우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오히려 탈모 예방에 좋지 않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권오상 서울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30일 YTN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리는 머리 감는 횟수에 대해 우선 “개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 2번, 특히 (피지 분비가 왕성한) 사춘기 때는 많이 감게 된다”라는 것.

이어 권 교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두피의 피지 정도에 따라 관계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40대 이상에서는 두피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4번 정도 머리를 감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너무 건조한 건 두피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3~4회 정도

머리 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너무 잦은 머리 감기는 두피 건강을 해쳐 탈모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머리 감을 때 물 온도에 대해선 “찬물로 감게 되면 모낭을 자극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피지,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는 조금 떨어진다”며 “따라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시중에 나오는 탈모 예방 샴푸가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실제 그런 성분들이 있다고 해도 머리를 감을 때 거품을 낸 다음에 바로 씻겨나간다”며 “안 쓰는 것보다 좋지만 약 만큼 효과적이진 않다”라며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기부하고  
선물도 받고!!

# 영천시 답례품 소개

고향사랑기부제




**포도**  
뉴스타영농조합



**포도**  
영천농업협동조합



**한우**  
금호축협한우프라자



**표고버섯**  
로제버섯



**송향버섯**  
몬스터농부



**살구**  
(주)자연의 시간



**원목병따개**  
베베르



**와인**  
조흔 와이너리



**와인**  
영농조합법인 위



**와인**  
우아미와인



**와인**  
고도리와이너리



**착즙과일주스**  
경북햇살농원영농조합법인



**간마늘**  
신녕농업협동조합



**쌀**  
굽들농원



**유기농빵**  
토끼빵야



**고구마스틱**  
한울푸드



**경옥활력단·경복고**  
한이약이



**샤인머스켓 빵**  
(주)심박



**벌꿀**  
너울



**벌꿀**  
천문대벌꿀



**오디&봉**  
(주)이비채



**마늘베이컨**  
(주)코리아



**복숭아잼**  
고을(주)



**보현산휴양림숙박권**  
영천시 산림과



**운주산승마휴양림숙박권**  
시설관리공단



**장류·체험권**  
자양전통장



**영천사랑상품권**  
영천시



**벌초대행**  
영천시 삼림조합



**영천시 세정과**  
☎ 330-6297~8